

‘내’의 공손한 표현으로서의 ‘우리’*

김 준 결

최근 국내 언어학자들과 언어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우리말 표현 가운데 언뜻 보기에 기이하다고 느껴질 만한 ‘우리 마누라’와 같은 표현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더불어 ‘우리 마누라’와 같은 구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관형어 ‘우리’가 ‘우리 마누라’, ‘우리 아버지’와 같은 구문들에 나타나는 경우 지칭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지칭 대상을 포함한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거나, 지칭 대상의 내집단(in-group)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거나, 혹은 화자와 지칭 대상 간의 서열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기존의 견해들을 각각 비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안적으로 ‘우리 마누라’는 ‘내 마누라’의 공손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말에서 빈번히 쓰이는 ‘우리’는 종종 주장되듯이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禮)를 중시하는 우리의 유교적 전통이 우리말에 체화되어 나타난 결과임을 보일 것이다.

주 제 언어철학, 화용론, 국어학

주요어 ‘우리’의 단수적 용법, 친밀성, 공동체, 내집단, 서열, 공손어

* 투고일: 2020. 03. 12. 심사 및 수정 완료일: 2020. 04. 25. 게재 확정일: 2020. 04. 26.

1. 머리말

우리말을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마누라’나 ‘우리 남편’이라는 표현을 기이하게 여길 것이다. 일부일처제의 혼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을 달리 이해할 길이 없어 한국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의 발로로 이해하곤 한다.¹⁾ 이러한 이해는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우리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어 연구자들에게서도 찾아질 수 있다.²⁾ 그러나 본 논문은 관형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그러한 기존의 해석들로는 ‘우리 마누라’와 같은 구문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더 나아가 새로운 대안적인 해석을 내놓고자 한다.

새로운 해석의 핵심적 주장은 ‘우리 마누라’에서 ‘우리’가 ‘내’의 공손한 표현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손한 표현’이라는 말은 ‘겸손하고— 즉 상대를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예의바른 표현’이라는 뜻을 갖는다. 이러한 뜻에서의 ‘공손한 표현’— 혹은 축약하여 ‘공손어’—는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 즉 ‘겸칭’ 혹은 ‘겸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윗사람이 친근한 아랫사람에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낮추어 칭하는 것은 어법에도, 예(禮)에도 맞지 않지만, 공손하게 말하는 것은 어법이나 예에 모두 부합한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녀를 상대로 자신을 가리켜 ‘나’와 ‘내’의 겸칭인 ‘저’와 ‘제’를 사용하여 ‘제 혈압 약’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은 옳지 않지만, ‘해라체’를 사용하여 “내 혈압 약 좀 가져와라”라고 하지 않고 ‘하오체’를 사용하여 “내 혈압 약 좀 가져다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상대가 아랫

1) 한국학 연구자 선지이 꾸마르(2015, 330쪽)의 다음과 같은 주장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를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집단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렇지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우리 남편, 우리 마누라는 사실상 이해의 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의미는 내 남편, 내 마누라라고 해야 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윤재학(2003), 정경옥(2005), 이한규(2007), 김혜령(2016, 283쪽)은 대명사 ‘우리’의 용법을 한국의 집단주의 혹은 공동체 문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정대현(2009, 81-2쪽) 또한 ‘우리 마누라’에서의 ‘우리’의 용법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사람일지라도 그 상대를 존중하여 스스로의 서열상의 우위를 내세우지 않고 공손히 말하는 적절한 어법이다.

공손어와 겸어의 위와 같은 차이를 고려해 볼 때, ‘우리 마누라’에서의 ‘우리’가 ‘내’의 공손한 표현이라는 주장은 ‘우리 마누라’가 ‘제 마누라’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화자가 자신의 아내를 가리켜 ‘제 마누라’라고 말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를 상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의미를 갖는 데 반해, 같은 상황에서 화자가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것은 비록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일지라도 자기를 낮추는 서열상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우리 마누라’와 ‘제 마누라’의 이런 의미상의 차이는, 만일 본 논문의 주장대로 ‘우리 마누라’의 ‘우리’가 ‘내’의 공손한 표현이라면 왜 ‘제 마누라’라는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제’라는 겸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에서도 공손하게 말하는 것은 가능하고, 따라서 ‘내 마누라’ 대신에 스스로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공손함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으로서의 ‘우리 마누라’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장이 옳다면, ‘내 마누라’와 ‘우리 마누라’—그리고 ‘제 마누라’—는 모두 표현상으로 화자의 아내를 의미하고 따라서 ‘의미론’상의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특정한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 대해 예(禮)와 관련한 상이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구들로서 ‘화용론’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 본 논문은 ‘우리 마누라’ 문제에 대해 ‘화용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주장이 옳다면, ‘우리 마누라’와 같은 표현의 사용을 한국인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의 부적절한 발로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잘못이다. 만약 그러한 이해가 옳다면 ‘우리 마누라’와 같은 표현들은 배척되는 것이 옳을 것이나, 그런 표현들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여 공손하게 말하고 행동하려는 우리의 오랜 예(禮)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오히려 보존되고 널리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2. ‘우리 마누라’의 특성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 마누라’와 같은 구문이 갖는 특징적 성격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나열하는 것이 앞으로의 논의 전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특성들을 빠짐없이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해석만이 ‘우리 마누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관한 적합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 마누라’는, 화자가 누구인지 결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 발화 맥락과 무관하게 일관된 (의미상의) 지시체를 갖는다.³⁾ 예를 들어 아래의 문장을 고려해 보자:

(1) 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리다니!

이 문장은 화자가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는 아내를 사랑스럽게 껴안으며 말하는 상황이든지,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자랑스레 말하는 상황이든지, 혹은 그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일기장에 기록하는 상황이든지, 언제나 화자의 아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우리 마누라’는 (화자가 누구인가를 제외하고는) 발화 맥락과 상관없이 항상 같은 지시체를 갖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누라’의 **맥락 무관성**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우리’가 관형사로 등장하는 ‘우리 [무엇]’ 꼴의 구문들이 항상 맥락과 무

3) 의미상의 지시체와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화자의 지시체’—즉, 화자가 대상을 가리키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 때 그 표현으로 가리키기를 의도하는 대상이자 동시에 화자가 그 표현의 의미상의 지시체라고 믿는 대상—는 발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는 처제의 뒷모습을 보고 아내로 오인하여 화자가 (1)을 발화할 경우 ‘우리 마누라’의 의미상의 지시체는 화자의 아내이지만 화자의 지시체는 처제가 된다. (‘우리 마누라’의 의미상의 지시체가 화자의 아내라는 주장은 ‘우리 마누라’가 ‘내 마누라’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지시체’는 달리 언급이 없는 한 ‘의미상의 지시체’를 의미한다. 의미상의 지시체와 화자의 지시체 간의 구분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정대현(2009), 강진호(2010), 최성호(2016)를 참조하라.

관하게 지시체를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넘어진 할머니를 보고 급히 달려가 보행신호가 바뀌기 전 가까스로 구해 내었다고 하자. 이 모습을 지켜본 한 아주머니가 그 학생에게

(2) 우리 학생이 정말 대견스러운 일을 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 학생’이라는 표현은 그 특정 발화 맥락에서만, 즉 그 학생을 듣는 이로 삼아 (2)를 발화했을 때에만 그를 지시체로 가질 뿐, (2)를 제삼자에게 발화하거나 혹은 일기장에 기록하는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다.⁴⁾

둘째, ‘우리 마누라’는 아래에서 곧 살펴 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 마누라’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 이 사실을 ‘우리 마누라’의 **단수 치환성**이라고 부르도록 하자. ‘우리 마누라’와 달리 ‘우리 엄마’는 유사한 구문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바뀌 쓸 수 없다.⁵⁾ 다음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자:

(3) 내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리다니!

(4) 내 엄마가 아침에 밥상을 차리다니!

(3)은 적절한 상황에서 발화되는 한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와 달리 (4)는

4) 이향천(2018, 84-5쪽)은 ‘우리 학생 이리로 와봐’에서 ‘우리’가 ‘거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우리’의 용법을 ‘적시(揭示)적(indexical)’ 기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거기 학생 이리로 와봐’라고 하지 않고 대신 손가락으로 그 학생을 가리키며 ‘학생 이리로 와봐’라고 하더라도 애초와 정확히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임에 반해, ‘우리 학생 이리로 와봐’라고 하지 않고 그 학생을 가리키며 ‘학생 이리로 와봐’라고 하면 원래와 의미가 다소 달라진다. 따라서 (2)나 ‘우리 학생 이리로 와봐’와 같은 문장에서 나타나는 ‘우리’는 지표사(indexicals)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아래 3절에서 ‘우리’의 이러한 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5) 황병순(1996, 2쪽)은 비슷한 사례로 “‘내 아들’이란 말은 쓰면서 ‘내 아버지’란 말은 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고 있다. 그 물음에 대한 황병순(1996, 3절)의 답은 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비록 적절한 상황에서 발화되었을 때 참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말 사용자 대부분은 (4)의 ‘내 엄마’는 화자가 (마치 어린아이나 혹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처럼) ‘우리 엄마’를 서투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셋째, 격을 차려 말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우리 마누라’를 ‘내 마누라’로 바꿔 쓸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기혼 연예인이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아래의 세 문장

- (5) 우리 마누라는 저녁에만 밥상을 차립니다.
- (6) 제 마누라는 저녁에만 밥상을 차립니다.
- (7) 내 마누라는 저녁에만 밥상을 차립니다.

중에서 마지막 문장 (7)을 발화한다면 (5)와 (6)을 발화할 경우와 비교했을 때 부적절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격식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내 마누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 마누라’라고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누라’의 **격식 친화성**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위와 관련하여, 화자가 윗사람을 상대로 말할 때 ‘내 마누라’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제 마누라’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과 달리,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겸칭인 ‘저희’를 이용하여 ‘우리 마누라’를 ‘저희 마누라’로 바꿔 쓰면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거나 혹은 적어도 어색한 문장이 된다. 우선 화자가 자신의 근친인 친구 철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

- (8) 철수야, 내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렸어!
- (9) 철수야, 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렸어!

(8)과 (9)는 모두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이제 화자가 자신의 윗사람을 상대로 같은 얘기를 하는 상황, 즉 (8)과 (9)를 겸칭을 사용하여 말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자:

(8*) 부장님, 제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렸어요!

(9*) 부장님, 저희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렸어요!

(8*)은 자연스러운 데 반해 (9*)은 그렇지 않다. (8*)과 (9*)의 차이는 관람권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묻는 고객에게 직원이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말했을 때의 차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10) 관람권은 오늘부터 한 달까지 유효합니다.

(11) 관람권은 오늘부터 한 달까지 유효하십니다.

자신을 최대한 낮춰 상대방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 특히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 가운데 실제로 (11)과 같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11)은 (10)을 잘못 말한 것으로서, 자기를 과도하게 낮추려 하다 보니 올바른 어법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되는 사례이다. 마찬가지로 (9*) 또한 화자가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어 말하려다 보니 어법을 어리게 된 데에 그 어색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우리 마누라’를 ‘저희 마누라’로 낮추어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어법이거나 적어도 부자연스러운 어법이라는 사실은 ‘우리 마누라’의 **낮춤 경직성** – 낮추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마누라’는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 ‘우리 집’ 등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후자의 표현들은 각각 ‘저희 아빠’, ‘저희 엄마’, ‘저희 집’이라고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저희 마누라’와 의미가 같은 ‘저희 집사람’이 ‘저희 마누라’에 비해 덜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저희 집’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인 듯 보인다.)

‘우리 마누라’가 갖는 위의 네 가지 특성, 즉 맥락 무관성, 단수 치환성, 격식 친화성, 낮춤 경직성을 모두 잘 설명하는 이론이라야만 ‘우리 마누라’

의 의미에 관한 적합한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 마누라’와 같은 구문들에 나타나는 관형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기존의 학자들이 제안해온 견해들이 위 네 가지 특성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보도록 하자.

3. 친밀성 논제

『표준국어대사전(1999)』에 따르면 ‘우리’는 세 가지 용법을 갖고 있다. 첫째, 칭자를 포함한 일인칭 복수 대명사로서 쓰이고, 둘째, 칭자를 배제한 일인칭 복수 대명사로서 쓰이며, 마지막으로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세 번째 용법의 예로서 ‘우리 엄마’, ‘우리 마누라’, ‘우리 신랑’, ‘우리 아기’, ‘우리 동네’, ‘우리 학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위 세 번째 뜻풀이는 ‘우리 마누라’와 같은 표현들에 나타나는 ‘우리’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우리 마누라’의 ‘우리’는 복수 일인칭 대명사 ‘우리’ 및 그것의 소유격 ‘우리의’와 의미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 자신을 가리키기 위한 단수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이 주장을 **단수적 용법 논제**라 부르도록 하겠다.

두 번째 주장은 화자가 자신이 어떤 대상과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 대상을 가리켜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언뜻 보기에 손쉬운 반례에 직면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쩍 마른 길고양이를 보고 길을 가던 여학생이 “우리 냥이 밥을 못 먹고 다니는구나”하고 안타까워할 때,⁶⁾ 그는 자신이 그 고양이와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해당 논제를 화자와 대상 간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

6) 『표준국어대사전』을 출간한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의 김정남(2003)은 대사전의 ‘우리’ 항목을 자세히 풀어 밝힌 그의 논문에서 비슷한 사례로서 “우리 찬호 숨씨가 좋구나” 또는 “우리 예쁜 강아지 배고프겠다”와 같은 문장을 들고 있다.

로 읽지 않고 ‘친밀한 감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약하게 읽는다면 그런 반례를 피할 수 있다. ‘우리 마누라’의 ‘우리’가 이처럼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친밀성 논제**라고 부르도록 하자.

단수적 용법 논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이 절에서는 우선 친밀성 논제가 참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친밀성 논제는 앞 절에서 언급한 ‘우리 마누라’가 갖는 네 가지 특성, 즉 맥락 무관성, 단수 치환성, 격식 친화성, 낮춤 경직성 중 어떤 것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선 (1)과 (2)–“우리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리다니!”와 “우리 학생이 정말 대견스러운 일을 했어요”–는 맥락 무관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1)은 화자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발화 맥락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특징인–즉 화자의 아내–을 가리키지만, (2)는 화자가 고정되어 있더라도 발화 맥락에 따라 다른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1)과 (2)에서 사용된 ‘우리’가 모두 친밀감의 표현이라면 그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혹자는 ‘마누라’라는 표현 자체가 항상 화자의 아내를 가리키는 데 반해 ‘학생’은 특정인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철수야, 내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렸어!”–에 대해 철수가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렸다니 넌 좋겠다!”라고 응대할 때 ‘마누라’라는 표현으로 철수는 화자인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8)의 발화자의 아내를 가리킨다. 따라서 ‘우리 마누라’의 맥락 무관성은 ‘마누라’라는 표현 자체의 특성이 아니고 ‘우리 마누라’에서 ‘우리’가 갖는 (친밀감이 아닌 다른 어떤) 의미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누라’와 ‘우리 엄마’는 (3)과 (4)–“내 마누라가 아침에 밥상을 차리다니!”와 “내 엄마가 아침에 밥상을 차리다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수 치환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그 두 표현에서 사용된 ‘우리’가 모두 친밀감의 표현이라면 왜 그러한 차이가 생겨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의 ‘우리’가 친밀감의 표현일 뿐이라면 왜 (7)에서와 같이 ‘우리 마누라’ 대신 ‘내 마누라’라고 할 수 없는지, 또 왜 ‘내 마누

라’를 ‘제 마누라’로 낮추어 말하는 것은 되고 ‘우리 마누라’를 ‘저희 마누라’로 낮추어 말하는 것은 어색한지도 설명되지 않는다.

혹시 있을지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친밀성 논제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형사 ‘우리’가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각주 6에서 제시된 사례들—“우리 찬호 솜씨가 좋구나”와 “우리 예쁜 강아지 배고프겠다”—과 문장 (2)—“우리 학생이 정말 대견스러운 일을 했어요”—는 청자 혹은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관형사 ‘우리’를 사용하는 예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갖는 의미이고, 이는 친밀성 논제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4. 공동체 논제

황병순(1996, 102-7쪽)은 ‘내 아버지’는 틀린 어법이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옳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우리 아버지’의 ‘우리’가 ‘말하는 사람을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즉 ‘우리 집’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황병순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우리 아버지’와 달리 ‘내 아버지’가 잘못된 표현인 이유는 ‘내’가 집단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황병순은 생각한다. 관형사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같은 표현들에서 화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 혹은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황병순의 주장을 **공동체 논제**라고 부르자. 공동체 논제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의 ‘우리’는 『표준국어대사전』이 주장하는 바처럼 단수적 용법으로, 즉 화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화자가 속한 공동체를 가리키는 복수적 의미의 표현이다. 따라서 공동체 논제는 관형사 ‘우리’의 의미에 관한 단수적 용법 논제와 대립하는 주장이다.

‘우리 마누라’에 적용하여 보자면, 공동체 논제는 ‘우리 마누라’가 ‘우리 집에서 마누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마누라’가 ‘우리(들)의 마누라’, 즉 ‘우리과 마누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주장, 혹은 달리 말해 화자가 마누라 공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주장과 구분되어야 한다.⁷⁾ 황병순의 공동체 논제에 따르면 ‘우리 마누라’의 ‘우리’는 소유격 ‘우리의’의 뜻을 갖지 않고 ‘우리 집’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동체 논제가 참이라면 왜 ‘우리 막내 동생’을 ‘내 막내 동생’이라고도 할 수 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공동체 논제가 옳다면 형제자매들이 여럿인 가족에서 그중 한 명이 막내 동생을 가리키기 위해 ‘내 막내 동생’이라고 할 경우 이는 ‘내 아버지’가 잘못된 표현인 것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표현이어야 한다. 막내 동생이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단지 나와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특정 역할을 하는 사람이므로 ‘우리 막내 동생’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동체 논제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아버지’에서 ‘우리’가 ‘나’를 가리키는 단수적 용법이 아니라 ‘우리 집’을 가리키는 복수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에 있다. 삼대가 함께 한집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집의 손자가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지,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손자의 아버지에게는 그 손자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손자가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그 손자 자신을 가리키는 단수적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황병순의 공동체 논제를 다소 수정하여 ‘우리 아버지’는 ‘화자의 집에서 화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화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자의 (가족의 울타리로서의) 집 밖에서 그 역할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⁸⁾ ‘화자의 집에서’라는 표현

7) 최성호(2017, 5절)가 지적하듯이, ‘우리의 마누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나타내는 집단의 일원들과 마누라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그럴듯하다. 따라서 만약 ‘우리 마누라’가 ‘우리의 마누라’를 의미한다면 화자가 일처다부제 사회에 살고 있다는 잘못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8) 화자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자의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구일 수는 없다

은 불필요한 수식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자의 집에서 화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은 ‘화자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 즉 ‘화자의 아버지’를 의미하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과 같으므로 궁극적으로 공동체 논제를 부정하고 단수적 용법 논제를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누라’와 관련하여, 마누라라는 존재는 개인보다 더 큰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편이라는 개체와의 관계에서만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체 논제가 참일 경우 ‘우리 마누라’보다는 ‘내 마누라’가 더 적절한 표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일대일의 독점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마누라’와 같은 표현들마저 ‘내’보다 ‘우리’의 꾸밈을 받는 것이 많은 상황에서 더 적절하다. 이러한 사실은 단수적 용법 논제, 즉 ‘우리 마누라’의 ‘우리’가 단수적 의미를 지닌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좋은 근거이다.

5. 내집단(in-group) 논제

고영근과 남기심은 그들의 『개정판 표준 국어 문법론(1993)』에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오빠,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나라’ 등과 같은 구문들에서 단수적 용법을 갖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내 오빠, 내 학교, 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자연스럽지 못해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의 꾸밈을 받는 말이 가족이나 구성원들의 공유(共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82-3쪽).

그러나 윤재학(2003, 3-6쪽)은 ‘우리 마누라’나 ‘우리 남편’처럼 의미상으로 독점적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은 물론이고 ‘우리 형님’이나 ‘우리 지도교수’의 경우에서처럼 의미상으로는 꼭 그렇지 않으나 특정 발화 맥락에서 화자와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분명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에서조

고 가정하면 그렇다. 그리고 이 가정은 황병순의 공동체 논제에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가정이다.

차 관형사 ‘우리’를 쓰는 것이 ‘내’를 쓰는 것보다 더 빈번하다는 점을 들어 고영근과 남기심의 해석을 반박한다.

대신 윤재학(2003, 9쪽)은 “‘우리 X’가 표시하는 것은 X에 의해 지칭되는 개체가 화자와 동일한 내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화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가리켜 말할 때 그 아버지가 화자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대상임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⁹⁾ (여기서 말하는 집단은 화자 본인과 화자가 가리키는 대상만으로 구성된 최소형태의 집단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윤재학의 해석은 고영근과 남기심의 해석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어떤 대상이 화자의 내집단의 일원임을 나타내기 위해 관형사 ‘우리’가 쓰인다는 이 주장을 **내집단 논제**라고 부르도록 하자.

윤재학(2003, 13쪽)은 내집단 논제의 한 장점으로 왜 어떤 명사는 다른 명사들에 비해 ‘우리’에 의해 수식되었을 때 더 자연스러운 구문을 만드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든다. 그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 ‘아파트’, ‘차’, ‘옷’의 순서대로 ‘우리’에 의해 더 자연스럽게 수식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는 각각의 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화자와 함께 내집단을 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재학(2003, 15쪽) 스스로 지적하다시피, 내집단 논제는 왜 동일한 내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명사들 간에도 ‘우리’에 의해 꾸밈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왜 ‘우리 형님’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데 반해 ‘내 형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들리는가? 마찬가지로 왜 ‘우리 지도교수님’이라고 해야 옳고 ‘내 지도교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어법인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내집단 논제의 더 중요한 문제점은 그것이 ‘우리 마누라’의 격식 친화성과 낮춤 경직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9) ‘우리 마누라’가 ‘화자 가족의 구성원인 화자의 아내’를 의미한다는 강진호(2010, 162쪽)의 제안은 윤재학의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내집단 구성 가능성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격식을 차려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 마누라’라고 해야 하고, ‘내 마누라’라고 해서 안 되는가? 또 왜 ‘제 마누라’와 달리 ‘저희 마누라’는 어색하게 들리는가? 내집단 논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아무런 답도 제공하지 않는다.

6. 서열 논제

윤재학(2003, 15쪽)은 위에서 언급한 ‘내 형님’과 같은 부적절한 사례들을 예로 들어, 내집단 논제만으로는 ‘우리’와 ‘내’의 상이한 용법을 설명할 수 없으며 “내집단 개념과 별개의 요인으로 서열관계가 중요한 요인이라는 신기현(2000)의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말한다. 신기현에 따르면 ‘우리’와 ‘내’의 사용상의 차이는 화자가 ‘우리’의 꾸밈을 받는 명사에 의해 지칭되는 대상과 어떤 서열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그 명사가 화자의 윗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우리’를 쓰고, 아랫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내’를 쓰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신기현의 이러한 주장을 **서열 논제**라고 부르도록 하자.

서열 논제는 ‘형님’과 ‘지도교수님’과 같은 표현은 윗사람을 가리키므로 ‘내 형님’과 ‘내 지도교수님’으로 바꿔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고, 또 반대로 ‘동생’과 ‘지도학생’은 아랫사람을 가리키므로 ‘내 동생’과 ‘내 지도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역시 잘 설명한다.

그러나 서열 논제는 마누라나 남편처럼 서열 관계로 따지기 힘든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 마누라’나 ‘우리 남편’과 같은 표현을 쓴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듯이 보인다. 자신의 마누라 혹은 남편을 높이는 의미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반대로 ‘내 마누라’나 ‘내 남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화자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이라고 했을 때와 비교하여 자신의 마누라 혹은 남편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나, 그러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화자는 지칭 대상을 ‘내(게 속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

짓고 있을 뿐 낮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화자와 어떤 서열 관계도 맺고 있지 않고 맺을 수도 없는 집과 같은 대상에 대해 왜 ‘내 집’보다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지도 서열 논제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윤재학(2003, 7쪽)은 서열 논제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에서 살펴보았던 내집단 논제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윤재학의 최종적 입장은 서열 논제와 내집단 논제를 함께 고려해야 관형사 ‘우리’의 의미를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서열+내집단 논제**라고 부른다.

서열 논제와 내집단 논제는 상호보완적인 것처럼 보인다. 내집단 논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 즉 ‘우리 형님’과 ‘내 지도학생’은 적절한 표현이지만 ‘내 형님’과 (청자와 화자가 같은 학생의 공동 지도교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우리 지도학생’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서열 논제는 잘 설명한다. 반대로 서열 논제가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 즉 ‘우리 마누라’나 ‘우리 집’이 올바른 표현이라는 사실은 내집단 논제가 잘 설명한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 서열+내집단 논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내집단 논제에 대해 위에서 제기되었던 또 다른 문제, 즉 ‘우리 마누라’의 격식 친화성과 낮춤 경직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는 서열+내집단 논제에도 유효하다. 우선 격식 친화성을 살펴보자. 머리말에서 보았듯이 기혼 연예인이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7)이라고, 즉 “내 마누라는 저녁에만 밥상을 차립니다”라고 말한다면, 이때 ‘내 마누라’는 ‘우리 마누라’나 ‘제 마누라’라고 해야 할 것을 잘못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7)은 청자에 대한 예(禮)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발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열+내집단 논제로는 왜 그러한 상황에서 ‘내 마누라’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대신 ‘우리 마누라’나 ‘제 마누라’라고 해야만 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또 왜 윗사람을 상대로 말할 때 ‘우리 마누라’를 낮추어 ‘저희 마누라’라고 하는 것이 어색하게 들리는지도 서열+내집단 논제를 이용해서는 답할 수 없다.

7. 공손어 논제

그렇다면 ‘우리 마누라’의 맥락 무관성, 단수 치환성, 격식 친화성, 낮춤 경직성 모두를 잘 설명하려면 ‘우리 마누라’에서 ‘우리’가 갖는 용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본 논문이 제시하고자 하는 대안적 해석은 머리말에서 간략히 소개했듯이 ‘우리 마누라’에서의 ‘우리’가 ‘내’의 공손한 표현, 즉 공손어(恭遜語)라는 것이다. 이를 **공손어 논제**라고 부르도록 하자.

공손어 논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 마누라’가 ‘내 마누라’의 공손한 표현인지를 밝혀야 하고, 둘째, 그렇게 이해했을 경우 어떻게 ‘우리 마누라’의 맥락 무관성, 단수 치환성, 격식 친화성, 그리고 낮춤 경직성이 모두 잘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여야 한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마누라’가 어떤 의미에서 ‘내 마누라’를 공손하게 표현한 것인지 보기 위해서는, 우선 더 명확한 사례로서 ‘우리 아빠’가 어떤 의미에서 ‘내 아빠’를 공손하게 표현한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스스럼없이 일컬어 ‘내 아빠’라 칭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아빠’라 하지 않고 ‘우리 아빠’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내 아빠’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만의 아빠’를 함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우리 아빠’라고 한다는 답변은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화자에게 다른 형제자매가 없다는 사실을 청자가 잘 알고 있는 터라 화자가 그런 함의를 피할 목적으로 일부러 ‘우리 아빠’라고 해야 할 아무런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조차 우리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내 아빠’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빠’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의 언어적 관습을 한국인들 특유의 공동체적 혹은 집단주의적 정서의 탓으로 돌리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만약 그런 탓이라면, 왜 일관되게 ‘우리 형(님)’, ‘우리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형(님)에 대해서는 대개 ‘우리 형(님)’이라고 하고 동생에 대해서는 대개 ‘내 동생’이라고 하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공손어 논제에 따르면, 우리가 ‘내 아빠’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빠’라 하는 것은 청자 혹은 제삼자에 대한 예(禮)를 갖추어 말하기 위함이다. 예란 『맹자』의 「공손추편(公孫丑篇)」에 나오듯이 근본적으로 사양지심(辭讓之心), 즉 겸손히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취하지 않는 마음이다. 따라서 예를 갖춘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임에도 겸손히 사양하는, 혹은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아빠가 내 아빠인 것이 사실이므로 그런 호칭을 사용할 권리가 내게 있으나, 윗사람인 부모에 대하여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또 그 권리대로 언행을 하는 것이 청자나 제삼자가 보기에 예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내 아빠’라 하지 않고 ‘우리 아빠’라고 하여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공손어 논제는 왜 독자나 독녀라도 자기의 아빠를 가리켜 ‘내 아빠’라고 하기보다 ‘우리 아빠’라고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또 공손어 논제는 ‘우리 형(님)’과 ‘내 동생’의 차이도 잘 설명한다. 화자가 자기의 아랫사람인 동생을 일컬어 ‘내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청자나 제삼자가 보기에 예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기에 화자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를 자신의 권리에 맞게 행동하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형(님)을 일컬어 ‘내 형(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빠’의 경우에서처럼 예에서 벗어나 보일 수 있으므로 내 권리를 내세워 ‘내 형님’이라고 하지 않고 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님)’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마누라’라는 표현이 왜 ‘내 마누라의’ 공손한 표현인지 살펴보자. 앞서 지적했듯이, 서열 논제는 ‘내 아빠’와 ‘내 형(님)’ 대신 ‘우리 아빠’와 ‘우리 형(님)’이라고 해야 하는 이유는 잘 설명하지만, 왜 서열 관계로 볼 수 없는 마누라나 남편을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이라고 부르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손어 논제가 옳다면 그 이유는 쉽게 설명될 수 있다. 남편이 자기의 마누라를 ‘내 마누라’로 부를 합당한 권리가 있기에 그 권리대로 언행을 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자기가 가진 권리를 사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을 목적으로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공손하게 예절을 갖추어 말해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청

자에게 반말로 친근하게 말할 때에는 ‘우리 마누라’라고 하지 않고 ‘내 마누라’라고도 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화자가 자신과 어떤 서열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자기의 집을, 가장으로서 ‘내 집’이라고 부를 염연한 권리가 자기에게 있는 경우에조차,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누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마누라’에 관한 공손어 논제가 어떻게 ‘우리 마누라’의 맥락 무관성, 단수 치환성, 격식 친화성, 그리고 낮춤 경직성을 잘 설명하는지 보도록 하자. 우선 공손어 논제에 따르면 ‘우리 마누라’는 ‘내 마누라’를 공손하게 표현한 것일 뿐이므로 의미상으로는 ‘내 마누라’와 정확히 같다. 그런데 ‘내 마누라’는 의미상 화자의 마누라를 가리키므로, 화자가 누구인지 주어지고 나면 발화 맥락과 무관하게 그것의 지시체가 결정된다. 따라서 ‘내 마누라’와 의미가 같은 ‘우리 마누라’ 또한 화자가 누구인지 주어지면 발화 맥락과 무관하게 지시체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달리 (2) – “우리 학생이 정말 대견스러운 일을 했어요” – 에서와 같이 ‘우리’가 청자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 그 ‘우리’는 아무런 의미론적 값을 갖지 않는다. 이 사실은 (2)의 발화가 참이 될 때 그리고 바로 그때만 다음 문장의 발화가 참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

(2*) 학생이 정말 대견스러운 일을 했어요.

즉 (2)에서 ‘우리’는 학생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역할을 할 뿐, 문장의 참/거짓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런데 (2*)에서 ‘학생’이 ‘학생인 너 [당신]’을 의미하므로, ‘학생’이 가리키는 대상은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1)에 나타나는 ‘우리 마누라’와 달리 (2)에 나타나는 ‘우리 학생’이 가리키는 것은 화자가 누구인지가 주어지더라도 여전히 발화 맥락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¹⁰⁾

10) ‘우리 학생’에서의 ‘우리’가 항상 친밀감의 표현으로 쓰이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세 학교의 학생이 장학퀴즈에 나가 1학교의 학생이 우승하자 1학교의 선생이 ‘우리

둘째, 공손어 논제는 왜 격식을 차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 마누라’를 ‘내 마누라’라고 할 수 있는지를, 즉 ‘우리 마누라’의 단수 치환성을 잘 설명한다. 왜냐하면, 공손어 논제가 옳다면, 화자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공손하게 말해야 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자기의 마누라를 ‘내 마누라’라고 응당히 자기의 권리대로 부르더라도 청자 혹은 제삼자가 이를 예를 어긴 것으로 여길만한 상황이 아닌 경우, 화자는 ‘우리 마누라’라는 공손한 표현 대신 ‘내 마누라’라는 직설적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공손어 논제는 다른 해석들에 비해 큰 장점을 지닌다. 화자와 그의 아들 간에는 명확한 서열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아들을 ‘우리 아들’이라고도 하고 또 ‘내 아들’이라고도 한다. 이는 내집단 논제나 서열 논제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공손어 논제에 비추어 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화자의 아들은 화자의 아랫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때로 청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를 권리’를 취하지 않고 ‘우리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굳이 다소나마 예를 차려 말해야 할 필요조차 없거나 혹은 그럴 의도가 없는 상황이라면 ‘내 아들’이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공손어 논제를 받아들이면, 왜 거꾸로 화자가 격식과 예를 차려 말해야 할 상황에서는 ‘내 마누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 마누라’라고 해야 하는지가 잘 설명된다. 왜냐하면 공손어 논제에 따르면 화자가 자신의 아내를 ‘내 마누라’라고 부를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공손하게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것이므로,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시청자를 상대로 말을 할 때처럼 예와 격식을 차려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라고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공손어 논제는 왜 ‘우리 마누라’를 ‘저희 마누라’로 칭하는 것이 잘못된 어법이거나 혹은 적어도 어색하게 들리는지도 설명해준다. 공손어 논제에 따르면 ‘우리 마누라’는 ‘내 마누라’를 공손하게 표현한 것일 뿐,

학생이 이겼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단수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를 뜻하는 복수적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의미상으로 ‘내 마누라’와 정확히 같다. 따라서 발화 맥락상 화자가 스스로를 낮추어 표현해야 할 경우 ‘내’의 겸칭인 ‘제’를 사용하여 ‘우리 마누라’ 대신 ‘제 마누라’라고 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 ‘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의 겸칭은 ‘제’이지 ‘저희’가 될 수 없다. ‘우리 [무엇]’ 꼴의 표현을 낮추어 ‘저희 [무엇]’ 꼴의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복수적 용법으로 쓰여 복수의 대상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뿐이다. 앞서 1절에서 예로 들었던 것처럼, ‘저희 마누라’와 달리 ‘저희 아빠’, ‘저희 엄마’, ‘저희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아파나 엄마, 집은 우리(들)의 아파나 엄마, 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마누라’는 ‘우리(들)의 마누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내 마누라’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의 단수적 용법을 이용하여 ‘우리 마누라’라고 하거나 혹은 겸칭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제’를 이용하여 ‘제 아내’로 낮춰 쓰는 것만이 옳은 어법이다. 그리고 그렇게 겸칭을 이용하여 낮추어 쓴 ‘제 마누라’를, ‘우리 마누라’가 ‘내 마누라’의 공손한 표현이라는 점으로부터 유비하여, ‘저희 마누라’라고 더 공손하게 표현하려는 시도는 마치 (11)–“관람권은 오늘부터 한 달까지 유효하십니다”–과 같이 말하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것으로서, ‘우리 마누라’에서 ‘우리’가 단수적 의미로, 즉 ‘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친 데서 기인하는 오류이다.

8. 맺는말

우리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마누라’와 같은 표현은 한국 문화 특유의 공동체적 혹은 집단주의적 정서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위에서 고찰한 바에 따르면, 그것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예(禮)의 관습이 우리 언어에 녹아든 결과로서,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집단주의적 태도나 혹은 화자가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을 내집단화하여 외집단의 일원과 구별하고자 하는 파벌적 태도

와 무관하다. 오히려 반대로, 화자가 지칭하고자 하는 대상이 화자가 ‘내 [무엇]’이라고 부를 권리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나 제삼자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예를 갖추어 ‘우리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다.

맺는말을 대신하여 이러한 공손어 논제를 지지해 줄 만한 두 가지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눈여겨볼 문제는 왜 유독 우리말에서 ‘우리 마누라’와 같은 언뜻 보기에 기이한 표현이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공동체 논제나 내집단 논제는 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집단주의적 정서에 기대어 설명한다. 그러나 내집단 소속임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우리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윤재학(2003, 9쪽)은 “‘우리 X’가 표시하는 것은 X에 의해 지칭되는 개체가 화자와 동일한 내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우리’가 고유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영어에서도 ‘our’가 고유명사 앞에 쓰여 화자가 지칭하는 대상이 화자와 같은 내집단에 있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내집단 소속임을 드러내는 표현들에 관한 한 영어가 우리말보다 더 잘 발달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말에서는 아들 철수를 내집단의 일원으로 드러내기 위해 기껏해야 ‘우리 철수’라고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영어에서는 ‘our John’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하게 ‘our own John’ 혹은 훨씬 더 강하게 ‘our very own John’이라고도 할 수 있다.¹¹⁾ 따라서 공동체 논제나 내집단 논제로는 왜 내집단 소속 표현이 잘 발달해 있는 언어인 영어에서는 ‘our wife’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데 반해 내집단 표현이 덜 발달해 있는 우리말에서 ‘우리 마누라’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손어 논제는 그 사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좋은 설명을 제시한다: 우리말에서 ‘우리 마누라’와 같은 공손한 표현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말에서 존댓말 표현이 다른 언어에서와 달리 고도로 발달해 있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한다. 즉, ‘내 [무엇]’이라고 하는 대신 나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 [무엇]’이라고 말하는 어법은 존대법과 함께 예(禮)의 관습이 우리말

11) 우리말에는 ‘우리 자신의 철수’나 ‘진짜 우리 자신의 철수’와 같은 표현은 없다.

에 체화된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며, 바로 이 사실이 우리말에서 ‘우리 마누라’와 같은 표현이 두드러지게 쓰이는 이유이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점은, 윤재학(2003, 27쪽)이 그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지적했듯이, “고령자, 남성의 경우 ‘우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청년,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의 사용이 빈번하다”는 사실이다. 윤재학은 이러한 결과가 “단수의 용법의 ‘우리’의 사용이 한국어에서 점차 소멸되어 가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한다. 공동체 논제나 내집단 논제가 옳다면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적 정서가 청년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서서히 퇴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소위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의 속된 표현인 ‘인싸’와 ‘아싸’가 청년들의 입에 널리 오르내리게 된 근황을 고려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집단주의적 혹은 파벌적 태도가 오히려 더 강고해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공동체 논제나 내집단 논제로는 왜 ‘우리 [무엇]’이라는 표현의 사용이 퇴조하고 점차 ‘내 [무엇]’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가는지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손어 논제가 옳다면 그러한 대체 현상은 집단주의 정서가 개인주의 정서로 대체되는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예를 중시하는 우리의 오랜 관습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점점 열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라고 해석될 수 있다.¹²⁾

12) 논평을 주신 익명의 세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 강진호 (2010), “우리 마누라의 의미”, 『철학적분석』 21호, 한국분석철학회, 153-164면.
- 김정남 (2003), “한국어 대명사 ‘우리’의 의미와 용법”, 『한국어의미학』 13호, 한국어의미학회, 257-273면.
- 김혜령 (2016), “1인칭 대명사의 의미 분석 - 의미 실현 조건 분석을 중심으로 -”, 『민족문화연구』 70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67-294면.
- 선저이 꾸마르 (2015), “한국어에 나타난 유교 문화적 요소 일고찰”, 『韓國學研究論文集(四)』, 中國文化大學韓國語文學系, 323-338면.
- 윤재학 (2003), “단수적 용법의 ‘우리’”, 『언어와 정보』 7-2호, 한국언어정보학회, 1-30면.
- 이한규 (2007), “한국어 대명사 ‘우리’”, 『담화와 인지』 14-3호, 담화·인지언어학회, 155-178면.
- 이향천 (2018), “우리는 나의 복수일까? 상호작용 세계로 들어가는 질문”, 『언어학』 80호, 한국언어학회, 75-113면.
- 정경옥 (2005), “한국어에 있어서의 ‘우리’의 사용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16-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405-421면.
- 정대현 (2009), “우리 마누라의 문법”, 『철학적분석』 20호, 한국분석철학회, 69-83면.
- 최성호 (2016), “우리 마누라와 험티덤티 문제”, 『철학적분석』 36호, 한국분석철학회, 143-167면.
- 최성호 (2017), “우리 마누라, 우리의 마누라, 그리고 마누라 공유 공동체”, 『철학적분석』 38호, 한국분석철학회, 291-326면.
- 황병순 (1996), “일인칭 대명사 ‘우리(들)’의 의미와 용법”, 『배달말』 21-1호, 배달말학회, 95-112면.

서강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joongolk@sogang.ac.kr

The Korean determiner ‘*uri* [our]’ as a polite form of ‘*nae* [my]’

Joongol Kim

Recently, Korean linguists and philosophers of language have engaged in discussions on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Korean determiner ‘*uri*’ as in such phrases as ‘*uri manura* [our wife]’ which might seem strange given the monogamous marital institution of Korea.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new interpretation of such expressions as ‘*uri manura*’. To that end, various proposals concerning the meaning and usage of the determiner ‘*uri*’ in those expressions will be critically examined first. Then it will be argued that ‘*uri manura*’ is a polite form of ‘*nae manura* [my wife]’ and is used when one needs, or wants, to speak in a polite tone in deference to the hearer or the wider audience. The upshot will be that the ubiquitous use of ‘*uri*’ in Korean is not due to the collectivist nature of the Korean society, as has often been claimed, but rather results from the linguistic embodiment of the Confucian tradition in Korea that values courteous words and behavior.

[Subject] Philosophy of language, pragmatics, Korean linguistics

[Keywords] The singular usage of ‘*uri*’, feeling of intimacy, community, in-group, social hierarchy, polite expressions